

고흥소방서 개청...독자 소방업무 개시

전남 14번째...풍양면에 25억여원 들여 3층 규모 들어서 소방공무원 107명 상주·소방차량 등 특수장비 25대 배치



박병중(오른쪽 다섯번째) 고흥군수와 소방서 관계자 등이 최근 고흥군 풍양면에서 열린 고흥소방서 개청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소방서가 전남에서 14번째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지난 25일 고흥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고흥소방서가 풍양면 일원에 개청함에 따라 군 독자적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고흥군은 그동안 보성소방서 관할 지역에 포함된 탓에 화재발생 시 출동 지연 등으로 소방서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고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화재 59건이 발생해 6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고흥소방서 개청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단독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기존 9개 자치단체에서 곡성, 구례, 장흥,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군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함평, 장흥, 완도 지역은 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소방서는 지난 2016년 7월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부지에 총사업비 2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를 갖춘 소방서 본관과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고흥소방서는 2과, 1대응단, 1안전센터, 9지역대로 구성했으며, 소방공무원 107명과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25대가 배치돼 독자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고흥에서 발생하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고흥소방서 개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흥소방서가 전국 제일의 소방기관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대인 모두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보성 햇감자 출하...작황·가격 모두 좋아

1만4000t, 240억 소득 예상

보성군 득량면과 회천면에서 햇감자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득량면 청정해역의 싱그러운 해풍을 먹고 자란 보성감자는 황도 토양으로 토질이 우수하고 득량만의 해양성 기후로 일조시간도 충분히 맛과 영양이 우수하다.

또 철분,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성분과 비타민 등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웰빙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올해는 감자재배에 일맞은 기상여건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하며 포근포근한 식감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수확 중인 '추백' 품종은 주로 조리

용으로 쓰이며 '수미' 품종보다 수확이 10일 이상 빨라 고가에 출하되고 있다.

웰빙 간식으로 인기가 있는 '수미' 품종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한다.

올해 감자는 1상자(특 20kg 기준)에 3만 5000~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5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보성에서는 950여 농가가 930여ha에 감자를 재배해 올해 예상 수확량은 1만4000t으로 24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30일 "감자 주산지인 보성에서 생산된 햇감자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성감자의 친환경재배 확대를 위해 고급화물 고소득 브랜드 작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지역 농민들이 제철을 맞은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득량만 비몽마리나 개장 본격 운영

전남 중·남부권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위해 조성된 보성 비몽마리나가 31일 개장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득량만에 있는 비몽마리나는 해양복합 레저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연말 완공했다.

요트 등 선박 24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연면적 355㎡ 규모의 클럽 하우스, 선박 수리동, 15척의 선박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육상저장장, 폭 28m의 슬립웨이 등을 갖췄다.

비몽마리나 운영은 올해 2월말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DIY 요트클럽이 맡는다.

비몽마리나는 해양레포츠를 하기에 적합한 수심과 해양 기온 등을 갖추고 있어 체험형 해양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부 군수는 30일 "해양레저 활동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득량만의 보성 마리나항만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과 연계해 지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귀어청년에 양식장 빌려준다

창업어장 8곳 확보...8·9월 두달간 41명 신청 접수

고흥군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을 위해 창업어장 8곳(565ha)을 신규 면허지로 확보했다.

소득은 높지만 진입장벽도 높은 양식 어업의 면허지를 확보하고 귀어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 귀어가 41명을 선정해 신규 양식면허지를 바탕으로 바다양식의 기반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한정돼 신규 양식어장을 원하는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렵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귀어인의 양식어업 기반지원을 위해 창업어장 신규 면허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남도로부터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등 총 565ha를 청년 창업어장으로 승인받았다.

고흥군은 창업어장에서 일할 청년들을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희망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관내 어가 평균소득이 7200만

원임을 고려해 청년 귀어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1인당 양식면적을 김 20ha(25명), 미역 6ha(6명), 가리비 2.5ha(10명) 이내로 배분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그 이후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거주 여촌계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다. 귀어가로 선정되면 어촌 거주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전입한 45세 이하 청년 귀어가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수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청년 귀어가로 뽑히면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2%, 5년 거주 10년 분할상환이다.

품종별 선도어가를 멘토로 지정해 양식어장 견학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흥군은 오는 7월 중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061-830-5414)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군 섬진강 불법어업 연중내내 단속

구례군은 "금어기가 끝난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섬진강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민·관·경합동 내수면불법어업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례군은 해마다 섬진강 내 불법어업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무신고·무허가 어업,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 사용, 사용제한된 어구를 사용한 유어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유어행위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군은 특히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내수면신고허가자가 조업구역 내의 불법어업행위를 발견해 즉시 군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 자체단속반과 경찰, 섬진강어족보존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기자 lit@

곡성군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접수 창구' 운영

곡성군은 "7월 12일까지 곡성군 민원실에서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곡성군이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접수창구'는 국민의 정책제안이나 인재추천 등의 의견을 받아 이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접수된 정책 제안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분류한 뒤 인수위 종로시점에 제안

자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에 설치되는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곡성군민의 참신한 정책제안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 정책 제안은 온라인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gwanghwamoon1st.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원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평택 전문

① 전원주택 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중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부지 (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5억 - 개발시 순수익 70억 !!

③ 평택 초역세권 (개발부지)-53평

송탄역 1분 (코너자리)
 위치 최고 분양 최고
 ▶ 매가 6억6천 - 개발시 순수익 15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구분 상가(소액) 물건 추천

-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 토 68평, 건 87평 (실명수), 월세 100만원 ▶ 감평가 2억4,600만 → 최저가 1억3천7백
-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토 65평, 건 145평, 분양평수 9평 ▶ 감평가 2천3백 → 최저가 2백1십만원
- 동구 학동 (아파트 상가) 학동 중심지역 1분/대단위 아파트 밀집 상가, 실명수20평 ▶ 감평가 7천9백 → 최저가 5천5백
-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완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0이상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7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19평, 월세 1200이상 ▶ 2억6천~1억2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0이상 ▶ 5억4천~2억4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010-7384-7800

010-7384-7800

010-2699-5300